



늘어난 '교육 기부' 재능 찾고 꿈 키우는 알찬 겨울방학을



겨울 방학이다. 시계추처럼 오가던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 어떻게 잘 보낼까 공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도 시작됐다. 움직여주기 쉬운 한 겨울, 기지개 켜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체험을 하며 풍성하게 보낼 수 없을까. 광주·전남 교육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체험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정신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전통문화·과학·직업탐색 기회

재능 나눔 참여 기관 해마다 늘어

◇알찬 교육기부 프로그램, 곳곳에 교육기부란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재능을 유·초·중·고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교육기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 등이 참여하는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공교육 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당장,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전국 시·도 교육청을 비롯, 일선 학교에 안내한 1200종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중 광주·전남에서 참여가 가능한 교육기부 활동은 모두 61개로,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는 다채로운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듯한 '자동차 익스테리어'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자동차 외형 디자인과 세시·보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이공계를 기피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여대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나의 맑은 목소리가 잘 들리!' 프로그램,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광주지방기상청의 '겨울방학 어린이 기상기후 체험교실' 등도 참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전남에서는 대학·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전남대 박물관은 전통문양 그리기·탁본 뜨기 등 전문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성 함양을 목표로 한 '전통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방학 기간에 운영한다. 순천제일대의 3D 프린터를 활용한 '3D 프린팅 제작 체험', 생활 속 사제 교정을 위한 '바른자세 운동 프로그램' 등도 자녀에게 권할만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공하는 '아인슈타인 대학생 멘토링', 한국철도공사의 '목포역 철도체험학습'은 대표·기관사·수송원 체험을 통한 직업 탐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전남도과학교육원의 '토요과학체험교실', '탐구학습관·전문관 체험학습' 등은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서둘러야 체험이 가능하다.

◇늘어나는 교육기부=광주·전남 지역 교육기부 활동도 부쩍 늘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이나 공공기관, 단체, 대학 등 716개 기관이 교육기부에 참여, 97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전년도(668개)보다 310개 늘어난 것으로, 운영 횟수도 전년도(1만543회)보다 1079회 증가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 2014년 교육기부 건수 812건으로 전년도(801건)보다 증가했다. 교육기부가 늘면서 수혜자도 급증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한 교원·학생 등 수혜자만 80만4315명에 달했다. 전년도(53만3339명)보다 참여자가 2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교육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도 지난해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만 12만7201명으로, 전년도(11만4016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013년 471개 ▲2014년 447개 기관과 기부 협약을 맺으며 교육기부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ju.co.kr

달력을 넘기면 대학이 보인다?

미술·사진 작품으로 단장한 대학 달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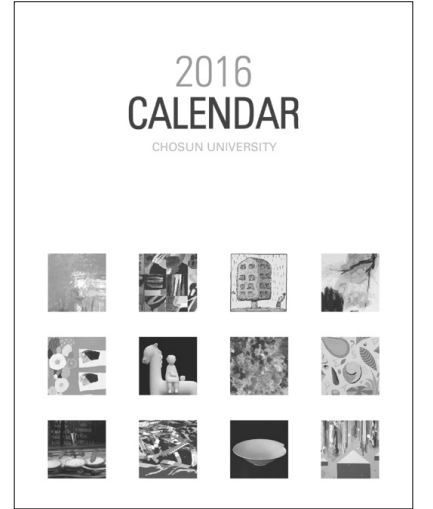
달력을 넘기면 대학이 보인다? 바야흐로 캘린더 시즌이다. 스마트폰에 들어간 달력 앱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탁상 달력 뿐 아니라 벽걸이용 달력 구경도 쉽지 않다.

그래도 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주요 학사 일정을 알리려는 대학들 입장에선 달력이 요긴하다.

조선대는 내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선보인 벽걸이용(5500부)·탁상용(6000부) 달력은 미대 교수가 모두 제작에 참여했다. 황영성 교수를 비롯, 23명의 미대 교수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화합'을 담는다는 취지로 화화·설치·애니메이션 작품까지 다양하면서 개성 넘치는 대표 작품을 각각 탁상·벽걸이 달력용으로 제공했다.

조운성 교수가 내놓은 '해피 에너지'라는 작품은 새해 대학의 밝고 희망찬 이미지를 걸맞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대는 학교 캠퍼스 사진과 학사 일정을 열두 달에 나눠 담아 탁상용·벽걸이용 달력 1만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스마트폰 달력 앱이 일정 예고까지 해주는 세상이지만 주요 학사 일정이 적힌 달력



조선대 2016년 달력

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게 대학측 설명이다.

광주대는 스마트폰 활성화 및 학교 재정 형편을 감안, 전년도까지 2000여부 찍었던 업무용 만형 달력 제작을 중단했고 업무용 수첩도 따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동신대와 호남대도 재정 형편을 이유로 홍보용 달력 중단을 중단한 지 오래다. /김지을기자 dok2000@

'1박2일 여행학교' 화순지오초 눈길

화순에 위치한 대안학교 지오초등학교가 정서를 강조한 특색있는 커리큘럼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지오초교(교장 정지영)는 정서와 학업의 균형을 교육 이념으로 내걸고 정서 지능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학교는 정서지능 발달의 최적기는 유·아동 시기이며 수리·논리·언어·사회 지능 등 모든 지능의 출발점이 정서 지능이라는 신념에 따른 교육 과정을 운

영중이다.

매달 1박 2일로 떠나는 여행학교와 과학·수학의 통합된 지식을 요구하는 '목공수업', 숲에서 하는 마음공부 '플레이 숲', '행복한 책임기', 전교생이 함께하는 혼합연령의 '자유놀이' 등은 학교가 자랑하는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 관계자는 "유·아동 시기에 정립된 정서 지능은 실패를 극복하면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교육단신

▲광주·전남 8곳,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학교 선정=교육부는 전남 진월초교 등 100개 학교 또는 학부모회를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학교의 경우 가정·학교간 소통 분야에서 전남 진월초교가 선정됐다. 진월초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진원봉가족의 날 및 학습현장 참여프로그램(진월Day)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 교육 참여 분야에서는 전남 율천초교가 선정됐다. 또 광주 송광중 학부모회와 전남 가은누리 학산초교 학부모

펜션·문화복합시설 최적!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2016년도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시작 하십시오!

**대표 : 최선규
H.010-3605-5000**